

이 공동체적 기반을 구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촌락공동체의 성격이 개혁개방과 개인 책임생산제의 도입으로 와해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의료, 노후부양 등 복지와 문화시설의 향유를 해당 지역사회가 자치적으로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지속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근간인 썸인데 연변에서 조선족들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도 생산과 소비는 개체와 집체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연변의 조선족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조선족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결론이 없다. 그것은 연변 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먼저 저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겪고 들은 것에 충실하게 서술하는 것을 목적 및 의의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충분한 연구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지의 조사여건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의 일년단위 예산행정 위주의 연구비 지급제도 및 연구평가제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에 실질적인 길잡이로서의 의의가 크다.

김광역,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Tel: 880-6423(O), 532-5011(H)

Susan Abeyasekere, *Jakarta: A Histor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98p.

1.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역사를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부분은 17세기 초엽 네덜란드가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의 옛 명칭)를 설립한 이후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의 식민지 도시로서의 역사를, 둘째 부분은 일본의 점령과 인도네시아 혁명으로 야기된 “정치적 공백기간”(interregnum: 1942 - 1949년) 동안의 역사를, 셋째 부분은 독립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의 자카르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사서술의 관점과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책이 인도네시아의 역사연구에 대해 갖는 의미는 첫째, 기존의 역사연구가 주로 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데 반하여, 저자는 지방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국가단위의 역사서술에서 제시된 일반적 해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수준에서의 역사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하려는 경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근대, 현대사 연구가 미국 정치학자들

에 의한 인도네시아 연구에 영향을 크게 받아 정치사적인 접근에 기울어져 있는 것에 반해, 저자는 자카르타라는 한 지역사회의 생활상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사회사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네덜란드 식민지정부의 공문서(archives), 통계자료 등의 공식문서 뿐 아니라, 소설, 여행기, 옛 지도, 개인의 비망록, 잡지, 신문 등의 문헌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고, 건축, 음악 등의 비문헌자료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는 여태껏 역사학자들이 소홀히 간주하여 왔던 자료들이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의미있는 역사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그러한 자료를 풍부히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자카르타의 역사가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에 대한 역사연구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별개의 독특한 문화를 갖는 예외적인 도시인가, 아니면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축소(microcosm)로 볼 수 있는가? 식민지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카르타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왔는가? 자카르타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연속과 변화의 측면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저자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다.

저자는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도시문화를 형성하여 왔으며, 그 독특성은 자카르타 문화의 코스모폴리탄적인 성격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자카르타 문화의 성격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17세기 초엽 네덜란드는 그들의 동인도회사(Dutch East India Company)의 군사요새겸 해외상사지점으로 бата비아(화란민족의 조상인 Batavians에서 유래한 명칭)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자는 бата비아를 본국의 도시를 본따서 설계하였으며, “유럽인을 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운하를 따라서 형성된 도로와 주택들, 낮은 бата비아 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흡사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나오는 옛 네덜란드의 세계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었다 (p.18).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бата비아는 이들이 의도했던 바와 같은 유럽인의 정착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유럽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다인종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

저자는 19세기까지의 бата비아를 인종적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계층화된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식민지정부의 관료, 군인, 상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네덜란드인이 бата비아의 상류계급을 형성하며, 노예, 하인, 막노동꾼으로 들어온 인도네시아인들은 도시의 최하층계급을 형성하였다. бата비아 거주 인도네시아인 중에 귀족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네덜란드정부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처음부터 이 지역의 원주민인 서자바인(Sunda족)의 бата비아시 거주를 원천적으로 제약하였다. бата비아에 거주하게 된 인도네시아인은 노예무역의 망을 통하여 술라웨시(Sulawesi), 몰루카(Molucca), 발리, 수마트라 등지의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은 낱품팔이 인부, 잡상인으로부터 부유

한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여, 바타비아 사회의 하층에서 상층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유럽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들은 각기 독자적인 거주지역을 점유하여, 인종간 분화는 도시공간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인종적, 계급적 분화가 존재하지만, 19세기까지의 바타비아 사회에서는 인종집단간의 문화적 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특한 바타비아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유라시안(Eurasian)의 문화, 뼈라나간(Peranakan: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중국인)문화, 브따위(Betawi)문화의 출현이 그것으로, 이들은 유럽과 중국의 문화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질적인 문화의 결합을 가져다 준 “문화의 중개자”(cultural broker)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여성이다(p.77). 미혼 또는 단신의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유럽인과 중국인 이민자들은 하녀 또는 노예신분의 인도네시아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들이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을 주도함으로써 자녀와 남편(?)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라시안과 뼈라나간이 그들 어머니의 언어인 말레이어를 하고, 인도네시아의 종교, 음악, 의복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여인들이 커다란 문화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저자는 “바타비아의 문화적 전통을 만든 사람은 바로 여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p.75).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다양한 인도네시아 인종집단간에도 상호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바타비아에서 출생한 인도네시아인은 “Orang Betawi”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다. 이들은 ‘광신적’이라고 할만큼 철저한 무슬림이며, 말레이어의 한 방언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 고유의 의복, 음악, 춤을 갖는 브따위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3. 20세기 이후의 바타비아[1942년에 일본점령군에 의해 자카르타로 개칭되었는데 자카르타라는 이름은 네덜란드가 바타비아를 건설하기 이전의 이 지역의 이름인 자야카르타를 변형시킨 것임]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기술은, 19세기 바타비아 사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저자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문화가 20세기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겪는 변화, 단절, 연속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혼합적 성격을 가졌던 바타비아 문화가 20세기 이후 바타비아의 새로운 인도네시아인 이민자와 중국인 이민자 양측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하며, 보다 배타적인 문화가 각 인종집단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바타비아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도네시아인과 중국인에 의한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일본의 점령과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의 붕괴 등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과거 네덜란드의 지배라는 보호막 아래 존재하였던 인종집단간의 상대적인 융화가 깨어지고, 보다 노골적인 인종간의 대립이 초래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자카르타의 유럽인 사회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중국인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인도네시아화 할 것이 강요되었다. 자카르타는 이제 독립 인도네시아의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으로서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저자는 자카르타의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도시정책 속에서 과거 바타비아 식민지행정과의 어떤 유사성을 읽어내고 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동일하게 추진된 “근대적” 자카르타의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는 그 근대성이 갖는 서구적이라는 함의에서 볼 때, 초기 바타비아 설계자들이 추구한 “유럽적인 도시”의 건설이라는 목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서구적, 근대적 도시건설은 도시의 권력층과 상류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들이 도시개발의 주된 수혜자가 되며, 도시의 하층은 이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카르타의 역사를 인종, 계급, 성의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분석은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자카르타의 역사에 대해 풍부한 문헌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카르타의 삶에 매우 친숙해 있다는 것이 저서의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기술 속에서 도시의 하층민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희생되는 객체적 존재로만 언급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나 의식에 대한 부분은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자카르타의 한 빈민촌의 삶과 역사를 생생하게 묘사한 L. Jellinek의 *The Wheel of Fortune*(1991)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저자가 이용한 자료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관료 또는 지식인이 남긴 문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책이 넘지 못한 한계이며, 기존의 역사서술이 자료의 비판적 해석에 취약했다는 문제를 저자의 경우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명석,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Tel : 880-8517(O), 562-1613(H)